

엘리아의 한계, 다 이루신 그리스도

왕상19:1-10, 약5:15-18

정윤돈 목사님

오늘은 열왕기상 후반부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이스라엘에는 왕국기가 있다. 크게 나누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있고 후반부에 다시 반복해서 역대상-하가 있다. 교사들과 다락방 사역자들은 어느 정도 그림을 아셔야 하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역대상-하에는 남 왕국, 다윗족속의 역사만 나온다. 사무엘상은 왕으로 따지자면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사무엘하는 쉽게 말해 '다윗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윗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나온다.

오늘 우리가 나눌 열왕기상은 1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상반부는 다윗왕의 사망에 대해서, 그 후로는 솔로몬 왕이 왕위에 등극하고 궁궐과 성전을 짓는 내용이 나온다. 성장하는 시기, 영화로운 시기이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이방의 많은 여인들과 정략결혼을 하면서 그들이 가져온 우상에 의하여 영적으로 타락한 솔로몬에 대한 내용으로 솔로몬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다. 결국 솔로몬 왕 때는 다윗 왕의 헌신과 믿음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지 않았지만,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두 동강이 나게 된다. 그래서 북쪽 10지파, 남쪽 2지파로 나뉘어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나라의 명칭을 칭하게 되었다. 12장부터 22장 마지막까지는 다윗 왕국의 분열을 이야기 하는데, 유다는 4명의 왕에 대하여, 그리고 북 왕국 이스라엘은 8명의 왕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다. 남 왕국은 다윗왕의 혈통으로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모두 다 다윗 왕의 씨가 그대로 연결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다윗 왕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다윗 왕조는 지켜지게 되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언약의 백성, 언약의 후손, 언약의 교회는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란다. 그 내용이 이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반면 언약에서 벗어난 북 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대가 계속해서 끊어진다. 그래서 8왕조, 8번이나 그 대가 끊기고 결국은 앗수르에 의해서 그 나라도 없어져 버리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우리가 언약을 놓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단순한 역사가 아니다. 나도 램넛 시절에 성경을 읽으면서 사사기부터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겹게 느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잘 되었다가, 타락했다가, 맞았다가, 회개했다가 똑같은 말씀을 지겹게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신대원가서 그 이유를 깨달았다. 히브리대학에서 박사과정으로 공부를 하는 동문이 있었는데, 대리석으로 된 벽에 아무런 조각이 없는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많은 우상을 섬겨 망하게 되었는데, 그 많은 역사를 보면서 한 가지 붙잡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우상 숭배는 절대로 하면 안된다." 그래서 그들은 세간 우상을 만들지도 않는 것이다. 그것만 가지고도 흑암세력, 우상세력은 꺾이고 되고 세계 모든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하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우상만 버려도 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음으로 어디에 빠졌는가? 율법주의에 빠져버렸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주의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복음주의, 복음의 축복 속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우상은 버렸지만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복음을 증거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황송한 일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민족, 교회를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열왕기상 후반부를 보면 엘리야와 아합 왕, 이세벨과의 대립 장면들이 나온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소중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 드린다.

엘리아 선지자는 열왕기 시대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다. 엘리야 선지자는 악한 우상시대에 대단한 기적과 능력을 보여준 선지자였다. 그러나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직접 위기가 닥쳤을 때는 쉽게 낙심하고 인본주의를 썼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여러분에게 존경스러운 목사님이 계시는가? 대단한 지도자가 있는가? 그런데 사실 그 분들도 모두 인간이다. 그래서 문제에 떨어졌을 때는 약해질 수가 있다. 여러분이 그 때 보호자가 되어 주시길 바란다. 아빠가 강한 존재인 것 같지만 문제에 부딪치면 굉장한 연약해진다. 그 때 우리 램넛들이 오히려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기를 축원 드린다. 직장 안에서 사장이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그러다가 넘어지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 때 보호자가 되어주고, 복음을 증거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종직자라면 문제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물어야 하는데 대부분 우리는 인본주의, 낙심, 절망을 다 해놓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종, 굉장한 종인 엘리야도 똑같았다. 엘리야도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엘리야도 똑같이 낙심하고 회피하려고만 했다. 그러나 그 때 하나님은 직접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이 악한 시대를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결국은 승리하는 은혜를 주셨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를 붙잡아야 하겠다. 또 그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같은 사람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언약을 붙잡고 복음 속에 있지 않으면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 발견하고, 그 현장 속에서 승리하고 살려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린다.

1.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기적은 무엇이며, 그의 연약함은 무엇이었는가?

(1) 먼저 엘리야에게 임했던 기적은 무엇이었는가?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다.

① 기도하니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엘리야는 대단한 기적을

일으켰지만 인간인지라 낙심하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런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는가? 엘리야는 그 당시 시대의 문제를 붙잡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엘리야만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시대에다 많은 문제가 있다. 청소년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남북 문제, 한국교회의 문제가 있다. 여러분이 그 중에 그 문제를 붙잡고 몸부림치며 기도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엘리야 이상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란다. 엘리야는 그 한이 있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한이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빚을 갚을지, 어떻게 이 위기를 탈출할지,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할지 생각한다. 엘리야는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한으로 몸부림치며 기도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영력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과 소통했던 것이다. 그러한 확실한 언약과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한다. 확실하게 보고 확실하게 믿는 것이다.

②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의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어떤 주석을 보니 이런 해석을 했다. 바알 선지자들을 불로 태워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섰는가? 우상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이 아니라 참복음이 증거 될 때 우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종교전쟁을 해서 되는가? 결국 이세벨이 다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 않나? 오늘 현장에서 오바다 같이 조용히 도와주면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싸우지 말고, 대립하지 말고, 그것이 진정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고 진정한 영력이다.

③ 가뭄이 왔을 때 한 과부에게 가서 떡을 구위달라고 하는데, 이 과부가 마지막으로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가져왔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뭄이 끝날 때 까지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마지막 양식인데 나 같으면 주지 않을 것 같다. (웃음)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이다. 나의 신앙의 멘토는 우리 어머니인데, 우리 어머니가 일부러 고향에서 쫓겨 온 목회자를 모셔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모습을 보았다.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 어머니의 조그만 헌신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는 절대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는다. 여러분이 그런 복의 근원이 되셔야 하고,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 중언이 되셔야 한다.

④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했다. 엄청난 능력이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기적을 일으킨다고 완벽한 존재인가? 그래서 엘리야를 존경해야 하는가?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적을 행해야만 하는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얻어야 할 것이 있겠지만 또 다른 교훈이 있다.

(2) 이러한 엘리야에게도 연약하고 불신앙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갱신해야 한다. 지교회를 갔더니 한 아이가 "엄마! 왜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에 처박혀 살아야해?" 했다고 한다. (웃음) 가까이 있으니 계속 교회만 가는 것이다. 이럴 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잘 알아야 한다.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수요일예배 또 드리고 기도수첩하고 훈련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구원받고 갱신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마음과 생각이다. 믿음은 틀음에서 난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끊임없이 타락한다. 천국 가는 날까지. 그래서 산세자로 우리의 몸을 드러야 한다.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엘리야같이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 엘리야 같은 대단한 인물도 문제가 오면 넘어진다. 하물며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계속 예배가 필요하고 말씀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어제 대학청년부 사역자들과 포럼을 해보니 직장생활에서 계속 괴롭히는 이세벨 같은 직장 상사가 있다고 한다.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했다.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웃음) 화도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란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떤 불신앙을 했는가?

①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에 바로 절망하고 광야로 몸을 피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죽었다는 말을 들은 이세벨이 화가 나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은 줄 알고 도망을 간 것이다. 왕상19:3을 보면 '그가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어떻게 보면 사람이 너무 연약하고 비굴하지 않은가. 왕상19:4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이 로뎀나무는 방울 매 쓰는 빗자루를 만드는 파리나무이다. 광야, 사막에서 그 밑에 들어가면 그들이 생기지도 않는다.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곳에 엘리야가 앉은 것이다. 그곳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너의 이름으로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살기 위하여 도망가 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한 것이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기가 행한 능력은 그 조상들, 모세보다도 대단한 것인데도 그렇게 낙심한 것이다. 자녀들이 제능이 많으면 서도 '난 못해.' 하면 뒤통수를 때리고 싶지 않은가. (웃음) 가진 것이 많고, 잘 할 수 있는데도 낙심하면 사지가 멀쩡한 사람도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나이 80세가 되어서 성경을 읽고 깨닫는 사람도 있다. 모세는 80세부터 120세까지 사역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다르다. 우리는 안 되는 것만 찾아서 이야기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다.

② 그래서 엘리야는 40주야를 도피했다.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40일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도망가기 위해서 40주야를 갔다. 왕상19:8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 주 사십 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렘에 이르니라.' 그냥 도망간 것이다. 어느 정도 도망갔느냐 하면 사십 주 사십 야를 광야에 홀로 걸어서 도망갔다. 그렇게 연약했던 것이다. 여러분이 도망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아서 쓰실 줄을 믿으시기 바란다.

③ 오직 자기 자신만 남았다고 착각하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있었다. 왕

창19:10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언약했다.

(3) 그렇다면 기적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기적과 신비주의로는 절대로 불신앙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대의 위상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 말세말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성경은 말세에 적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여러분은 살후2:9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면 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란다. 어떤 기적도 필요 없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하나님께 필요한 대로 다 알아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응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란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깜짝 놀란 일이 있다. 가까이 있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면 얼굴이 달걀모양으로 예뻐지고, 치유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예뻐지려고 많이 온다. (웃음) 이것이 무서운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못생겨지더라도 오직 그리스도,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한다. (웃음) 보니까 이상하다. 그렇게 못생긴 여자가 잘생긴 남자하고 만나는 것을 보면 신기하다. 그렇게 뚱뚱한 남자들이 예쁜 여자와 다니는 것을 보면 신기하다.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웃음) 응답받기를 바란다. 살후2:9에 보니까 ‘악한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라’ 말세에 가서는 사탄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킨다. 만약 우리의 기준이 그런 증거, 기적, 치유라면 우리는 헛갈리게 되는 것이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그럴 때 정확하고 바른 신앙으로 걸어가갈 수 있는 것이다.

2.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영적 문제를 알아서 그들을 치유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상태의 대표격인 사람이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다. 아합 왕과 이세벨을 치유하기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이 오바다,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들이다. 이러한 응답을 받기를 축원한다.

(1) 먼저, 아합과 이세벨의 영적인 불신자 상태를 통해서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한다.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배우지 않았는가. 적용해보자.

①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의 영적상태는 완전히 사탄에게 지배당한 상태였다. 그 하는 모습이 완전히 마귀 자녀이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도 현장에 나가면 이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악한 지도자를 반드시 만나게 된다. “저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면, 사탄에게 완전히 쫓겨지지 않았으면 그럴 수 없다.” 여러분이 정말 맛있는 종직자, 성도가 되시기를 바란다.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최정용 목사님 동기로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신다. 이제껏 내가 들은 중에서 제일 재밌게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다. 그 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쫓겨나게 되신 것이다. 내용을 들어봤더니, 장로님이 한 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교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한다. 빌려주지 않으니까 쫓겨서 3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은 것이다. 그러다가 3년 후에 어찌어찌 다시 교회를 나와서는 목사님을 쫓아내는 일을 한 것이다. 그 목사님이 다시 개척을 하셔서 지금은 제일 성장하는 교회로 발전하였다. 여러분, 오바다 같은 제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원한다. 정말 마귀자녀가 아니고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얼마든지 우리가 잘못 배우면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근본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복음을 깨달은 자는 그럴 수 없다. 거의 아합과 이세벨 수준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다.

② 영적으로 불신자 상태가 되면 무엇인가 심기고, 중독되고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한다.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생을 걸었다. 사람들은 세상 일, 먹고 사는 일에 생을 건다. 하나님의 일에 생을 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 드린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사무엘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생을 거시기 바란다.

③ 아합과 이세벨은 정신적으로도 정상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 그렇다. 어제 설영당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소주 한 잔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전화로 누구와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 환상이 보이는지 혼자서 대화를 하는 것이다. 눈을 마주치면 싸움을 걸 것 같아서 멀찍이서 현장을 보고만 있었다. (웃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온다. 특히 이세벨은 더 심했다. 3년 반의 가뭄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나봇이라는 농부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하여 그 사람을 모략으로 죽이고 탈취하기 까지 했다. 왕비란 사람이 그랬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도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 어떻게 왕으로써 그 조그만 포도원을 빼앗겠다고 사람을 죽이는가? 그 농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합 왕이 바로 쫓아가서는 그 포도원은 자기 것이라고 한다. 아주 사소한 것인데, 이것이 정신질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행복할 수 없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정신적인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상한 욕심, 인격이 생긴다. 더러는 훌륭한 사람인데 이런 내적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기도 한다. 그런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된다. 가족은 슬플지라도 남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문제 때문에 갈등하기도 한다. 무엇을 해도 만족과 행복이 없다. 이것이 마음과 생각의 문제이다.

④ 그러다가 육신적인 문제도 발생한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가 들이닥친다.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이길만한 마음도 생각도 힘도 없는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결국 이세벨은 예후에 의해 잡아 던져져서 개에게 먹히는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하나님을 떠나면 육신적으로도 망하게 되는 것이다.

⑤ 자신은 잘 모르지만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것

이 지옥 같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다가올 때도 있다. 어떤 분은 저녁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몰려온다고 한다.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는 자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는데 이 사람은 그것이 공포스러운 것이다. 왜 그런가?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영은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것이다.

⑥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 해주는 것이다.

(2)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가?

마17:8을 보면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인간의 문제는 종교로도, 율법으로도, 신비주의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 된다고 이기적으로 이야기 하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다.

①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란다.

② 그 어떤 사람과 방법으로도 죄 문제, 사탄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 분들이 우리의 죄 문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탄을 이길 수 없다. 모든 종교는 사탄을 섬기는 것이기 사탄을 이기고 물리칠 수 없다. 지옥 문제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인줄 믿으시기를 바란다.

③ 그 성삼위 하나님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접 요19:30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란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 속에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지만 한다면 우리도 엘리야가 체험한 것 그 이상의 기적적인 응답과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란다.

말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복음과 그리스도로 결론 난 성도들은 이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도전, 미션을 가져야 하겠는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그림을 계속 그려나가야 하는가.

(1) 오바다와 같은 종직자가 현장에 준비되어있음을 알아야 한다. 오바다는 아합 왕 밑에서 일하면서도 선지자 100명을 보호해 주었다. 여러분이 그러한 식주인이 될 만큼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 드린다. 한 명의 선교사가 아니라 100명의 선교사를 보호할 정도의 응답, 그러한 위치와 자리. 그리고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한다.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예비 되어있는 맛있는 종직자가 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로 결론난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들과의 만남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란다. 만남이 다르다는 것이다.

(2)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명자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캠프를 하는 것이다. 교회가 문을 닫고 부흥되지 않는 이 시대에, 핍박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 시대에, 위상과 흑암이 가득한 이 시대에 나뉘어 없는 것 같고, 우리 교회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눈을 열고 현장에 캠프를 나간다면 예비 된 제자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란다. 그 분들과 함께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다. 왕상19:18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남은 자이다. 바알이 무엇인가? 세상과 위상과 돈과 타락이다. 모든 것에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모두 타락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타락하지 않고, 그런 것을 싫어하는 청소년들이 훨씬 많다. 그런데 한 번도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메시지 해준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중고등학생, 대학청년들이 방황하는 것이다. 아예도 틈사역을 하면서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고 물었다. 본인이 대학 들어가서 계속 술도 마시고 오토바이도 타고 사업도 해보았는데, 결국 되는 것이 없으니까 허무함이 느껴졌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일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 그런 예비 된 중고대청, 예비 된 사람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여러분이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과의 만남이 없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 결론내시기를 축원한다.

(3) 엘리사와 같은 제자를 찾아야 한다. 엘리사는 알아보고 끝까지 쫓아갔다.

(4) 엘리야처럼 곳곳에 RUTC를 세워 후대를 훈련시켜야 한다. 나는 엘리야가 기적만 일으킨 줄 알았는데 왕하2:1에 보니까 길갈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있었다. 왕하2:3에 벨엘에도 제자가 있었다. 왕하2:5에 여리고에 가나나 또 제자들이 있었다. 왕하2:7에 요단에도 있었다. 엘리야가 이들을 보고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 중에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갔다. 마지막에 영감의 두 배를 원한다고 했다. 이 생도들이 모두 깨어있는, 준비된 사람들이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하나님이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승천케 하실 것을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 밝은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이미 다 깨닫고 알았는데 따라가지 않았다. 따라간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 뿐이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는가? 결론 난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현장에 함께 가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원한다. 이 네 가지 방법만이 위상과 타락으로부터 이 흑암시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란다. 문화와 시대를 정제, 정제를 회복시킬 RUTC를 곳곳에 세우고 제자를 키워야 되는 것이다. 엘리야 시대처럼 문제가 많은 이 시대에 개인과 가정과 왕들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영적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 드린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메시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의 레임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같은 사역을 하게 하시고, 오바다와 같은 사역을 하게 하시고, 그 이상의 사역을 우리가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주옵소서. 감사드리으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